

# 진안군, 농촌유학 1번지 '우뚝'

# 정체성 확립 위한 무주학 연구

## 전북도 1호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공모 최종 선정

진안군이 전라북도 농촌유학 1번지로 우뚝섰다.

13일 군에 따르면 전라북도 1호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공모에 진안군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농촌유학 기구의 생활 수요를 고려한 공동이용시설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내 5개 시군이 유치를 신청했다.

1차 발표평가와 2차 현장심사를 통해 진행된 평가에서 진안군은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입지 조건 등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별한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된 군은 2024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46억 원을 들여 부귀면에 9개동 18세대의 주거시설을 조성한다.

가족체류형 거주시설과 연계해 학부 모 센터, 청소년 활동공간, 체육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30억 원을 투입해 2년 안에 지을 계획이다.

이미 진안은 농촌유학생들에게 큰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감도.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등 타지에서는 학생(15명)들과 가족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유학생들의 유입으로 폐교위기에 놓였던 부귀초는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농촌유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진안교육지원청·학교·마을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특히, 더 나아가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지역에 농촌유학생은 물론 가족까

지 유입되어 귀농·귀촌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전라북도 1호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진안군이 농촌유학 1번지로 우뚝 설 수 있게 됐다"며 "학교를 살리고 지방소멸위기에 놓인 농촌도 살리는 전국적인 성공모델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군, 무주학 연구·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무주군이 지역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재조명할 '무주학 연구 및 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13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황인홍 군수를 비롯해 이해양 군의회 의장 및, 의원, 유관 기관장, 분야별 자문위원 및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학 연구 및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무주학 연구에 들어갔다.

민선8기 황인홍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시행되는 무주학 연구는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문화적 특성을 밝혀낼 수 있는 지역학 연구다.

즉, 무주학은 '무주'라는 범주를 정해놓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통섭학문(학제 간 연구방식)으로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라는 민선 8기 군정 슬로건에 부합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날 황인홍 군수는 "무주가 중심이 되어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아닌 '지역'의 관점으로 무주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잠재되어 있

는 무주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발굴하여 무주가 발전할 수 있는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착수보고회는 이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기관: 전라문화연구소) 연구책임자인 박정민 교수의 발표로 진행됐으며, 무주학 정립을 위한 단계별 수행계획으로 △국내외 지역학 현황 검토 △조사자료 목록화 및 특징 도출 △무주학 방향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무주학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세부사업 추진계획 설정 등 단계별 조사연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세부방향을 논의했다.

박 교수는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무주학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주군 관광진흥과 문화재팀 임정희 팀장은 "이번 용역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지속성을 위한 조례 제정, 무주학 총서 간행, 주민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등 무주학이 군민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군, 봄 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 총력

진안군은 봄 가뭄을 대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3일 군에 따르면 가뭄발생 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가뭄대책 매뉴얼에 따라 가뭄대책에 필요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읍·면에서 관정 및 양수 장비가 영농기에 적기 가동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마쳤다.

올해 군은 총 49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용수원개발, 수리시설개보수, 농업기반정비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농업용수 보조수원공 및 간이양수시설을 최대 활용한 급수대책을 마련하고, 상수 가뭄 지역은 인근 수리시설 및 양수장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계현 건설교통과장은 "수리시설 개보수 등 공사 중인 지구는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 농업용수 수리시설 관리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가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홍삼축제'

9월 22-24일 개최

2023 진안홍삼축제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열린다.

진안군은 진안홍삼축제 추진위원회 2차 총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진안홍삼축제는 추석 전인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마이산 북부 마이봉 테마공원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추진위원회는 이번 총회에서 축제 개최 일정을 정하고 기본계획과 예산을 승인받았으며, 축제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홍삼축제는 대한민국 유일 홍삼특구의 고장인 진안에서 홍삼을 테마로 한 전국 유일의 축제이다. 2020~2023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됐고 4년 연속 전라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었으며, 올해 2월에는 한국방문의 해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선정되어 진안군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무주천마클러스터사업단 방문

## 이종훈 장수부군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총력

### 천마 명성 유지·품질 향상 주문... 과수화상병 약제방제 현장도 찾아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이 13일 무주천마클러스터사업단과 화상병 방제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조 청장은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박동구 원장과 황인홍 무주군수, 신상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특화작목인 천마의 고부가가치화와 천마산업 고도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천마사업단을 방문해 천마연구센터 현황 및 주요 핵심사업과 성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조 청장은 "무주천마가 전국 재배면적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명성 유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무주군 대표 특산물인 천마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생산해 지역농가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주덕유산영농조합을 방문한 조 청장은 천마분말, 천마진액, 발효천마 등 천마 가공상품과 사업장 운영 등에 대

해 청취했다.

황인홍 군수는 무주 천마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천마 저장 등 관련 연구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해 농촌진흥청에서 적극 지원을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과수화상병 약제방제 현장을 방문해 화상병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예방 및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은 작기 약제 살포로 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주력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주체들과 협약

지난 1월 농식품부가 주관한 2023년 공공형 계절근로 공모에 선정되며 2년 연속 선정이라는 영예를 안았던 무주군이 농번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3일에는 농협무주군지부(지부장 권오정)를 비롯해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등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주체들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이날 협약을 통해 무주군과 농협무주군지부, 무주농협과 구천동농협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추진 협의회(이하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기로 했다.

추진협의체에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결정하는 일을 하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이종훈 부군수가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도13호·19호·26호 개량사업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장수군에 따르면, 이 부군수는 지난 12일 장수군 사업구간인 국도13호·19호·26호 도로를 직접 현장방문 하고 도로 인근 마을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제6차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또한 이날 이 부군수는 실무진들과 함께 장수군에서 건의한 국도개량 신청대상지 7곳 총 58.9km를 직접 돌아보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국토부 현지조사를 대비해 접근방식을 논의하는 등 지역의 열악한 도로여건을 알리고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것을 당부했다.

국도13호·19호·26호 도로는 국도시설 기준에 미흡해 최근 9년간 교통사고가 92건이(사망 8명) 발생한 구간으로 주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도로 구조개선이 시급하다.

그러나 비용대비 편익(B/C) 미달로 지난 20년 동안 국가계획에 미반영돼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종훈 부군수는 "이번 제6차 국가



계획에는 꼭 건의 대상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 및 유력 인사 등을 만나 충분히 설득하고 지원을 요청하겠다"며, "2002년 한국축구가 4강 신화라는 꿈을 이뤘듯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안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민들에게 강조했다.

이어 "이 사업이 장수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만큼 군에서도 온 행정력을 집중해 이번에는 꼭 군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종훈 부군수는 전북도에서 일자리 경제정책관 과장 및 전북도 지사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현장 행정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넓은 인맥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장수군에서 신청한 각종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